

광양시, 11년 연속 '전국 일자리 대상' 수상

공시제·우수사업 2개 부문 청년·미래 일자리 성과 인정

광양시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에서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하며, 11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 정책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매년 시행돼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광양시는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통해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체적 목표 설정과 추진 전략, 실적 관리 등에서 정합성과 실행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



광양시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에서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하며, 11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었다. 또한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은 '포스 코그를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의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해 청년 고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시정방침 아래 시민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11년 연속 수상을 통해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이 더욱 뜻깊고 앞으로도 전 세대의 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

으로 한 미래형 일자리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2만㎡ 규모의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조세감면·규제완화·행정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공영민 고흥군수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에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미래 전략산업 육성·교통 인프라 확충 등 높은 평가

공영민 고흥군수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에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며 민선 8기 군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평가조직위원회, (사)한중최고지도자 아카데미가 주관했다.

공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별교~녹동 간 '우주선 철도' 건설 추진 △고흥우

~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등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영민 군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상은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격려이자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도 박강현 사무관 시집 '시와공감' 펴내

두번째 출간...재생에너지·지역 정서 등 다채

전남도청 미래에너지산업과에 근무하는 박강현 사무관(사진)이 두 번째 시집 '시와공감'을 출간했다. 2012년 첫 시집 '두물머리 나무' 이후 13년 만의 성과다.

박 사무관은 "늘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해왔다"며 "삶과 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를 통해 새로운 시선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첫 장은 재지 중인 재생에너지 분야와 맞닿아 있다. '탄소중립', '마이크로그리드', 'RE-100', '양자역학', '인공태양(핵융합)', '레이저생태계' 등 낯설 수 있는 신산업 개념을 시어로 풀어낸 '시의 역할' 연작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울돌목, 빛깔, 여름·가을 풍경을 묶은 계절 연작, '면양정 송순



만나기', '장풍어 다리', '정남진물 축제' 등 지역의 색을 담은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사회적 아픔을 응시하는 시선도 담겼다. 12·4 내란 사태의 상흔을 다룬 시, 제주 항공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씻김굿'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시처럼 생각하고, 시처럼 살다가, 시처럼 가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며 문학과 삶을 연결 지어왔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언급하며 "죽어버린 사회를 일으키는 힘은 결국 '시'라는 믿음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윤병태 시장, 상인 목소리 경청

나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6개소에서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이용 독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나주 육사교시장, 영산포포물시장 등 전통시장 5곳을 직접 방문해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점과 함께하는 상생페이백 행사, 영산강축제 행운소비 증서복권 이벤트, 골목명상점가 지정 사업, 나주사랑상품권 특별할



인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 직원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묵묵히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광주효천1LH1단지, 인형극 공연 개최

가산작은도서관서 '또또와 뽀뽀' 공연

광주효천1LH1단지는 단지 내 가산작은도서관에서 '또또와 뽀뽀'란 환경 예방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다.

인형극은 광주 무등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극단 도깨비는 아기 도깨비 또또와 강아지 뽀뽀를 주인공으로, 연기에 허락 없는 외출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다.

인형극은 단지 내 아이꿈 어린이집 아동 40명과 입주민 10명이 참석해 관람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원 가산작은도서관 소장은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이용 확대와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서구, 사회적 경제·이음장터 개최 '눈길'

12개 업체 참여...가치소비 실현

광주 서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구는 1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추석명절 사회적경제 & 명장성공소를 이음장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와 판매·판

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장터에는 엠마우스 일터 등 사회적경제 기업 9개소를 비롯해 인조이 플리즈 등 명장성공소를 참여 업체 3개소 등 12개 업체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의 친환경 제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1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추석명절 사회적경제 & 명장성공소를 이음장터'를 찾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첨단지구대-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 안전·권익 보호 '맞선'

광주 광산경찰이 이동노동자 안전과 권익 보호에 나섰다.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는 최근 광주노동권익센터와 교통 기초질서 확립과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은 광주 주된 상권 중 하나로 이동노동자들의 방면이 잦은 시리단길 인근 건물을 임대해 운영되며 내부에는 냉난방기·냉장고·TV·정수기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정호 기자 ljh4415@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상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부음 △김갑순씨 별세. 정승구·정영구·정현규(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모친상. 구영숙·유선호·안영선 시모상. 정지현·현진·빛나·대석·다운·혜련·헤미·대광·지민·지혁·하늘 조모상=9월 30일 광주수완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0월 2일 오후 12시 50분. 장지 담양 갑향공원. 010-3071-0757.

은세 (음력 8월 11일)

48년생 명예 훼손을 당할 수 있다
60년생 우선 귀하의 주머니부터 생각하라
72년생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84년생 혼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
96년생 뒷사람과 상의하면 길이 보인다
51년생 환경을 극복하는 길을 택하라
63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
75년생 수고한 공이 남에게 돌아간다
87년생 자녀 계획 세우기 적합한 날
99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54년생 낭비를 하지 말고 아껴 두라
66년생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확인하는 때
78년생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
90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가게된다
57년생 금전보다도 먼저 의리를 생각하라
69년생 아님 방중에 흥두꺼라
81년생 편견을 갖기에 충분하다
93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9년생 깊어지를 제대로 하게 될 것
61년생 새 국면으로 재편된다
73년생 유익한 조연자가 나타나는 날
85년생 지인 도움으로 거레가 이뤄진다
97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라
52년생 귀하가 먼저 도와줘야 된다
64년생 재물에 미련을 갖지 말 것
76년생 상황판단 잘하여 기회잡자
88년생 주위 여건이 만족시키지 못한다
55년생 가족과 이별의 임시가 있다
67년생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질을 높이라
79년생 학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91년생 관심을 표하라
58년생 금전 손해 보게 되니 앞서 가지 말라
70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다
82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라
94년생 시험 운이 좋으리니 근심치 말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귀하의 호수머리를 노린다
62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본다
74년생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앞서간다
86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에 입사한다
98년생 의롭게 처신한다면 칭찬 받는다
53년생 적이 되어 싸움이 붙을 우려가 있다
65년생 확실하게 귀하의 의사를 밝혀라
77년생 너무 자존심을 죽이지 말라
89년생 무리하면 곤혹스러워할 수도 있다
56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도와줘야 할 일
68년생 공허로운 문서를 탐내지 말라
80년생 가족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라
92년생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
59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필요
71년생 직장내 불신 불화 주의
83년생 뛰어난 만큼 소독이 있다
95년생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